

광주의 역사·문화, 시원한 '부채'에 담다



박계숙_작 '무등-봄의 노래'

금봉미술관, 8월 31일까지 '光고을 DNA를 찾아서' 전 작가 55명 참여... 무등산·조선대 장미축제 등 풍경 선사

빛고을 광주는 다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역사와 문화 등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광주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지역만의 독특한 정서가 담긴 작품 등이 창작되고 있다. 시와 서, 문장,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문화를 일구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독특한 역사와 지리적 특색 등을 손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것 같다. 여름에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 가운데 하나가 '부채'다.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생각들을 부채에 담는다면 이색적인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빛고을 광주에 대한 단상을 담아서 펼쳐보는 부채(扇面) 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바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부채를 모티브로 전시를 연 것. 주제는 '光고을 DNA를 찾아서'.

8월 31일까지 금봉미술관 1층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모두 5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간 먹고 답재를 사용해 산수화와 문인화, 서예 등을 부채에 그리는 작가들로 한정하지 않고 전공과 장르에 관계없이 서양화와 공예작가들도 포함하고 있다.

'光고을 DNA'라고 표현한 데서 보듯 광주의 DNA는 예향과 의향과 미향 등으로 수렴될 수 있겠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예향, 의향, 미향의 토대 위에 더 확장된 광주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봉미술관은 빛고을 광주에 대한 단상을 부채에 담은 전시 '光고을 DNA를 찾아서' 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다.

전시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안겨준다. 무더위는 제만치 물러나고 눈이 즐거우니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참여작가로는 고미아, 광영주, 김갑진, 김미희, 박계숙, 백은희, 신서운, 신유화, 양병구, 유소연, 윤애실, 이주옥, 정경진, 정혜영, 조민지, 최소애, 최인숙, 홍정호, 홍지희 등 모두 55명이다.

박계숙 '무등 봄의 노래'에선 서석대와 입석대의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치 병풍처럼 무등의 품을 에두르고 있는 서석대와 입석대는 무등도원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두 점 두동실 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청량감을 선사한다. 서석대에 올라 펼쳐진 광주의 풍경을 굽어보면 무더위가 싹 씻겨나갈 것 같다.

고미아의 '조선대 장미축제'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장미축제의 풍경을 모티브로 했다. 조선대 본관을 가운데 두고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가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동화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부채를 움직이면 잔잔한 장미향이 밀려올 것 같다.

이두환의 '충효동 왕버들'은 평소 보는 왕버들과는 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기다란 줄기를 늘어뜨린 왕버들나무에 형형색색의 꽃눈이 달려 있는 듯한 모습은 생동감과 이국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 나무에 수백 수천의 꽃눈이 장식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연말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최소애의 '빛고을 광주'는 '光'자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모습이 세련되면서도 단아하다. 광주라는 도시가 지닌 정체성과 예술적 아우라 등을 잘 포착했다.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부채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도 있다.

정미선의 '중심사 삼층석탑'은 무등산에 오르면 가게 되는 중심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고유 유산이다. 작가는 보라색과 분홍색의 나팔꽃을 삼층석탑 앞에 배치하고 뒷면에는 연초목의 숲을 그려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전한다.

이두환의 '충효동 왕버들'은 평소 보는 왕버들과는 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기다란 줄기를 늘어뜨린 왕버들나무에 형형색색의 꽃눈이 달려 있는 듯한 모습은 생동감과 이국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 나무에 수백 수천의 꽃눈이 장식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연말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최소애의 '빛고을 광주'는 '光'자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모습이 세련되면서도 단아하다. 광주라는 도시가 지닌 정체성과 예술적 아우라 등을 잘 포착했다.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부채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도 있다.

정미선의 '중심사 삼층석탑'은 무등산에 오르면 가게 되는 중심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고유 유산이다. 작가는 보라색과 분홍색의 나팔꽃을 삼층석탑 앞에 배치하고 뒷면에는 연초목의 숲을 그려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두환 작 '충효동 왕버들' 정미선 작 '중심사 삼층석탑' 최소애 작 '빛고을 광주'

무더위 날려줄 '기이한' 영화를 만나다

광주극장, 27일 '붉은 사막'·8월2일 '다섯번째 홍추' 개봉

한여름 무더위를 씻어줄 이색적인 영화 두 편이 관객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에서 개봉 예정인 신구(新舊) 두 작품 '붉은 사막'과 '다섯번째 홍추'가 그것.

먼저 베니스, 칸, 베를린국제영화제 최고상을 석권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작 '붉은 사막(1964)'은 27일 만날 수 있다. 제자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친 작품으로 안토니오니의 첫 컬러 영화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은 신경 쇠약을 앓으며 편집중적 증세를 보이는 줄리아나(모니카 비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과감한 붉은 색채에 초록색 코트, 희박하게 일렁이는 연무는 신묘한 느낌을 자아내기 충분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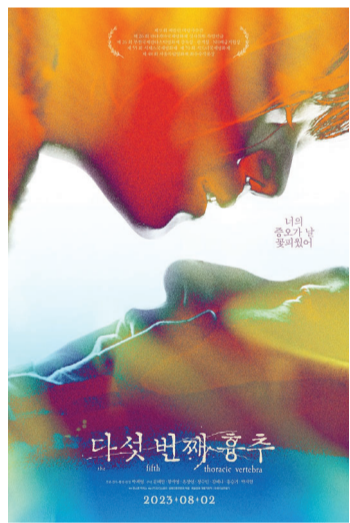
"작품을 통해 이탈리아 북부 산업도시의 변화하는 모습과 인간 내면정신의 관계를 묘사했다"는 안토니오니 감독의 말처럼 작품의 비주얼은 현란한 색감, 사운드가 가득해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근대화가 낳은 비인간화의 단면을 몽상적 기법으로 드러내 기묘한 감각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작품은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박세영의 '다섯번째 홍추(2023)'도 다음 달 2일 개봉한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인간의 적추뱀을 빼앗으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괴생 명체들의 디스토피아 세계를 초점화한다.

헤어진 연인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곰팡이 하나가 우글거린다. 애증을 먹고 피어난 곰팡이꽃은 침대를 찢고 검은 잎새를 벌린다. 이별 후에 찾아오는 절망에 휩싸여 의지가 지없이 고통스러워하던 연인들은 힘없이 침대에 몸을 눕힌다.

무력해진 이들의 피와 살을 앗아가다 마지막엔 적추뱀까지 갖게 된 곰팡이는 기이한 생명체로 탄생한다.

작품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첫 공개했을 당시 3관왕을 수상했으며, 이후 제48회 서울독



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장편경쟁) 및 2023 베를린 비평가주간 초청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광주극장은 여름철을 맞아 관객들이 시네마강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29일(오후 4시 30분)에는 '윌로 씨의 휴가(1953)' 상영회 후 이명세 감독(대표작 'M(2007)', '인정 사정 볼 것 없다(1999)')을 게스트로 초대해 시네마토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여름 오페라 '라보엠' 무대

빛소리오페라단, 29일·8월26일·9월23일 광주아트홀

예술가들이 살던 파리의 다락방, 시인 '로돌포'는 모처럼 성탄 전야를 축하하기 위해 이상을 동경하던 친구들과 모였다. 창문을 노크하는 눈발은 한겨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단장 최덕식



지휘 박미미

이윽고 이웃집 여인 '미미'가 문을 두드린다. 훗날을 빌리기 위한 것이지만, 로돌포는 사그라드는 불꽃 같은 미미가 안쓰럽기만 하다. 그녀에 대한 동정과 연인의 감정은 머지않아 '사랑'으로 변해 가는데.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 이하 오페라단은 오페라 '라보엠'을 오는 29일(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펼친다. 8월 26일과, 9월23일에도 같은 시간-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오페라로 평가받는다. 아리아부터 2중창, 4중창까지 폭넓은 음악들을 만날 수 있으며, 로돌포와 미미의 '생각 안나네', '사랑스런 그대' 등의 2중창과 '기쁨은 어디에 있지?'

(미미),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무젯타) 등의 아리아가 레퍼토리에 있다. 특히 전 인원에 무대에 올라 함께하는 4중창 '잘있소, 내 사랑을 일깨워 주이여'와 '뭐요?'는 압권. 흥성 4중창의 풍부한 사운드와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한편 총감독 및 연출에 최덕식 단장, 지휘에 박미미, 해설에 김중우가 나선다. 로돌포(장호영 등), 미미(윤희정 등), 마르첼로(권운만), 무젯타(장희정 등) 역의 오페라단원들도 무대에 올라 기량을 선보인다.

광주아트홀 한은주 실장은 "크리스마스에 주로 상영하는 오페라 '라보엠'을 한여름에 선보인다"며 "오페라가 선사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시원한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 무료, 공연문의 빛소리오페라단에 전화.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코끼리가 코가 없다고? 인형극 '끼리?' 8월12일~20일 ACC어린이극장

코가 없어 태어난 코끼리가 있다. 코가 없는 탓에 이름도 '끼리'인 코끼리는 '코가 없어 이상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코 대신 생긴 콧물과 자 신만의 놀이를 발견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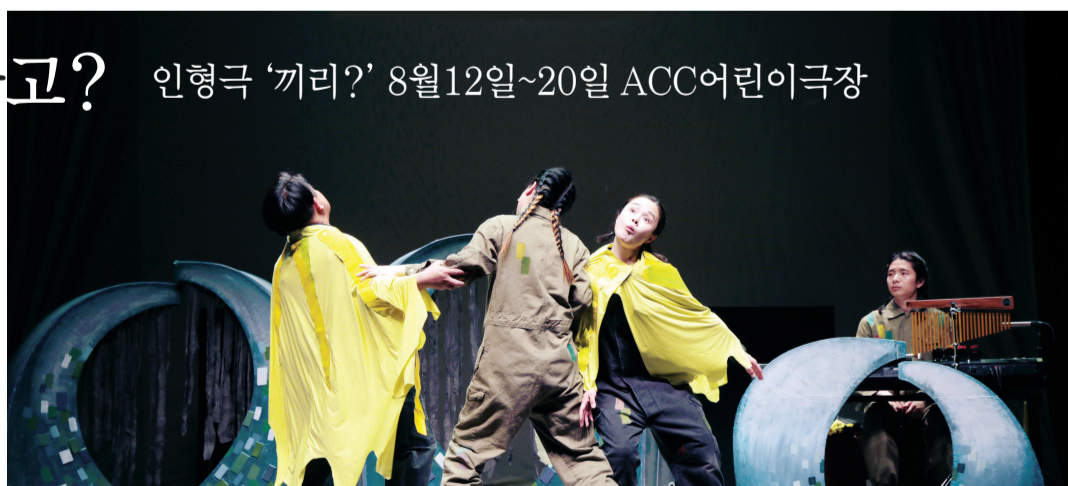
코 없는 코끼리의 용감한 모험을 담은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창작집단 인사리의 '끼리?'(사진)가 오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이번 작품은 경계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비롯해 문자해설, 터치 투어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작품은 코가 없어 놀림을 당한 끼리가 스스로 무리를 떠나 숲 속 동물 친구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끼리는 코는 없지만 멋진 콧물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던 중 가족들이 물을 찾아 떠난 곳이 위험하



다는 소식을 듣게 된 끼리는 용기를 내 가족을 찾아 나선다. 가족을 만난 끼리는 세상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코가 없는 끼리가 아니었어. 나는 멋진 콧물코를 가진 콧물끼리였어!"

공연은 재미있고 기이한 물체들과 인형 오브제가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며 참여형 놀이로 구성된다. 움직임에 소리를 입혀 생명력을 불어 넣었으며 라이브 연주를 통해 볼거리와 흥겨움을 가미했다.

한편 이번 작품은 불로나 국제 아동 도서전 올해

의 작가상 수상작인 그림책 '콧물끼리'(작가여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영동 발달한 사건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누구나 장애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세 이상 관람 가능. 관람료 1만5000원. ACC 누리집 통해 예매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비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

8월9일까지 3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예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2023 광주예술인 아카데미(GjAA) 예비예술인 과정 '예술로 살아가기'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이며 예비예술인들의 진로를 비롯해 예술단체 활동,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8월 28일-29일(2일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5층)에서 진행된다. 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광주시 소재 문화예술 관련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상이며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일차 교육내용은 전문예술인(시각/공연분야), 예술기반 창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재직

중인 '예술행정가' 등을 초청해 '예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매개로 직업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2일차에는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이다. '나는 예술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고민을 글로 표현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생 모집은 예술로 살아가기 위한 예비예술인들을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 과정을 통해 진로와 활동, 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한편 2023광주예술인아카데미(GjAA)는 총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한 예비예술인과정 외에도 창업편(First Mate 2기), 창작기획워크숍, 예술현장 트렌드, 예술인 권익보호 과정 등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